

## 어쩔 수 없는 그림 '사랑'



작가 공지영이 새 장편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를 펴냈다. '도가니' 이후 5년 만의 신작으로, 공작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일간지에 연재했던 작품을 책으로 묶어냈다.

소설은 작가가 10년 전 읽었던 책 속 몇 줄의 묘사가 모티프가 되었다. 한국전쟁 중 흉남 철수 때 목숨을 걸고 피난민을 구조한 선장 아리너스의 실제 이야기,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방인 성직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작가는 이 이야기들을 풀곤 마음에 품고 있다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짧은 수사의 인성 순례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 소설은 경북 칠곡군 성베네딕도 왜관 수도원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소설의 인물은 크게 몇 명의 젊은이들과 장년·노년의 인물들로 나뉜다. 소설의 화자 정요한 수사는 모범생이다. 갈 길만 가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른들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다.

정요한 수사의 친구 미카엘은 지적이고 논리적인 인물이다. 성실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 교회 장상(長上)들의 기대를 받지만, 그는 교회와 장상들에 비판적이다.

또 다른 친구로 고아인 안젤로가 등장한다. 조각상처럼 아름다우며 마음이 따뜻한 수도원 사립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대수도원 원장인 아빠수사의 조카 소희가 있다. 그녀는 정요한 수사와 어릴 때부터 알아온 약혼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젊



###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지음

차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캐리커다.

이렇듯 젊은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나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다.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장년과 노년의 인물들은 매력적인 품성을 지녔다. 요한 신부, 토마스 수사, 요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리너스 수사 등..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전쟁, 고난과 같은 역경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는지를 젊은이들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지난 시절의 고난을 통해 생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세대다. "대체 왜" 나인지, 신에게 분노하면

〈한겨레출판·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

작가는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둔다. 품위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으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문제다. 이 소설이 다양한 사상 이야기를 서사화하고 있는 이유다. 정요한과 소희, 정요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미카엘과 그의 여자 친구, 수사들 간의 사랑, 안젤로와 어머니 등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처럼 소설은 다양한 인물들의 삶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려낸다. 그 기저에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내주는 이의 품위의 아름다움이 드러워져 있다. 소설 제목 '높고 푸른 사다리'의 상징성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혼자로는 지극히 약한 인간이지만 사랑은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한다. 작가는 '사랑은 신의 다른 이름이고 우주의 다른 이름'이라고 정의한다.

"사랑은 누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누주고 싶은 마음이고, 저 사람이 가진 나쁜 것을 내가 나눠 갖기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은 이미 우주만큼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다."

〈한겨레출판·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남자아이, 제대로 이해하기

### '소년의 심리학'

마이클 거리언 지음



한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소년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저자는 그토록 취약한 소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런 존재인지, 아들이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도 이야기한다.

1부 '남자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에서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즐거운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도움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2부 '남자아이에겐 무엇이 필요한가'에서는 통찰, 실제 전략, 사회적·정서적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위고·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이어령, 그의 내밀한 삶

### '창조의 아이콘, 이어령 평전'

호영송 지음



'이어령 읽기'의 충실한 텍스트를 만들었다.

호영송은 원거리 혹은 근거리에서 바라본 이어령을 멀티 포커스 묘사와 분석으로 그려낸다. 이어령의 외면과 내면적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고, 그의 진면목과 우리의 비밀을 풀어낸다. 특히 딸(故 이민아 목사)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 종교인, 생명자본주의 운동에 헌신하는 이어령의 참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어령은 문학을 출발점으로 하였고, 한국에서 누구보다 먼저 문화를 힘주어 외친 사람이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다고 해서 아니라 그는 운동 문화의 DNA로 가득 찬 사람이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클래식에 대한 色다른 시선

## 정의 향한 소크라테스의 절규

## 신은 왜 성을 억압하는가

### '클래식의 격렬한 이해'

에드워드 T.콘 지음



지난 2004년 향년 87세 나이로 타계한 음악학자 겸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T.콘의 책 '클래식의 격렬한 이해'는 클래식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책은 '음악 생활의 질서와 규칙-수만이 주는 교훈', '슈베르트 '마왕'에 얽힌 짧은 사유', '사람의 목소리-바흐의 합창곡이 불러일으키는 환상', '악기의 목소리-베를리오즈가 준 교훈', '성악곡을 듣고 영혼이 흔들린다'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베토벤, 모차르트 등 유명 음악가와 그들 작품에 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생일 축하 노래'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보고, 무용수와 음악의 호흡, 연주자와 작곡가의 관계 등도 이야기한다.

요즘 많이 나오는 클래식 입문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클래식을 바라본 책으로 문화와 철학, 역사를 넘나드는 입문서 성격도 갖고 있다. 읽는 데 약간의 '공력'이 필요하다.

〈엘피·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랑하라'

황광우 지음



인문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황광우씨가 소크라테스를 다룬 '사랑하라'를 펴냈다.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법정을 떠올리며 그 이면에 숨겨진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무엇 때문에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몰고 갔는가?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인들은 왜 마지막까지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가?

'사랑하라'는 오만에 빠진 제국 아테네를 향한 한 철학자의 목숨 건 저항을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의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고뇌와 투쟁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은 타락해가는 아테네 제국을 깨우는 한 편의 긴 고백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않은, 시대의 주류적 흐름에 대해 저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저자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가치를 성찰하도록 한다.

〈생각정원·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침대 위의 신'

대럴 W. 제이 지음



우리 시대 종교가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관은 무엇일까? 혼전 순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기독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자행하는 이슬람교, 현 시대의 종교적 풍경은 많은 이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안겨준다.

'신들의 생존법'으로 알려진 대럴 W. 제이 박사가 '침대 위의 신'을 발표했다. 저자는 여전히 2000년 전의 동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 종교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그는 인간의 성을 중심에 놓고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모든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근본주의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자는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을 차단당한다. 결국 교회를 떠나

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수많은 지성인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에 눈을 뜬다. "만약 성에 대해 종교를 배제한다면?" "종교는 왜 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까?" 저자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인류의 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을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했던 하드자족, 여성의 성적 만족과 다중 오르가즘을 최고 가치로 추구했던 만가기가 섬 사람들, 결혼 없는 모계사회를 이어가는 중국의 나족 등 종교 이전의 인류는 신이 없이도 즐거운 성생활을 누렸다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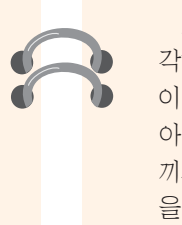
〈머리머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신간

▲세계 경제의 거대한 재균형=2007~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세계는 심각하고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금융 및 경제 위기에 시달려왔다. 책은 왜 미국에서 발생한 그 위기가 유럽과 세계 전체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한다. 〈에코리브르·1만7000원〉



▲판결문으로 본 알기쉬운 선거법 해설=선거인후보자들의 필독서, 배터랑 법조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풍부하고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 책은 선거법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선거법해설 가이드북에 걸맞게 선거과정에서 흔히 위반하게 되는 법률조항을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기부행위, 제3자 기부행위, 부정선거에 관한 범죄행위 등 판결문 270여건을 분석해 자세히 설명했다. 〈석탑출판·2만5000원〉



▲벌거벗은 통계학="왜 누구는 숫자 때문에 웃고, 누구는 숫자 때문에 망하는가?" 미국의 경제경영 전문 사이트 '800-CEO-READ' 선정 최고의 경제서 '벌거벗은 통계학'의 저자 찰스 윌러가 '벌거벗은 통계학'으로 돌아왔다. 저자는 책을 통해 통계학이야말로 복잡한 세상을 꿰뚫는 흥미롭고 아주 요긴한 도구임을 증명한다. 〈책읽는수요일·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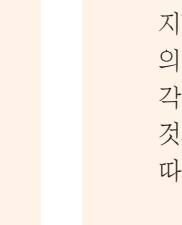


▲세계 뱀파이어 이야기=19세기 추리·공포문학의 대표 작가들이 쓴 아홉 편의 뱀파이어 이야기와 전 세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네 편의 뱀파이어 전설을 담고 있다. 피리가 달린 여우뱀파이어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교묘히 숨는 마녀뱀파이어 등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머스트비·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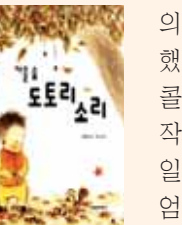
▲아구 몰리야 인생 몰리야=대한민국 아구해설의 원조 하일성, 그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있다. 반항의 10대에서 베트남전 참전, 교사직을 그만두고 34살 늦은 나이에 해설가로 뛰어든 후 KBO 사무총장까지 역임하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겪기도 하지만 세차례의 큰 수술을 하면서 생사를 넘나들기도 했다. 삶의 밑바닥에서 최정신까지, 죽음을 극복하며 깨달은 달란의 경지를 보여주는 인생철학이 담긴 책이다. 〈동아시아·1만2000원〉



▲기술혁명=무엇이 과연 인간적인가? 를 묻는 새로운 인문학,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시도하는 '테크노 인문학'에 대한 제안이자 실천이다. 저자는 현대 과학기술의 도전 앞에서, 오랜 세월 과학과 격리되어온 인문학이 과학기술에 의해 주도된 지금 여기라는 조건에서 인간과 인간다움을 성찰함으로써, 집중하는 '기술권력'을 제어할 새로운 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세상·1만7000원〉



▲불량 하우스=쓰레기로 가득 찬 불량하기 짝이 없는 집에서 홀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열두살 베니, 그리고 베니의 집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려진 창작동화. 〈책세상·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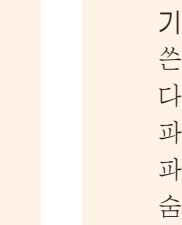


▲가을 숲 도토리 소리=나무 의사로 유명한 우종명 저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숲소리 그림책'을 꺼내 놓았다. 운율을 살려 숲속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를 글로 담아내고 하영 작가의 가을 풍경이 글을 포근하게 감싸 준다. 아마추어 청소년 작곡가 최지은양이 운율에 맞춰 작곡한 음원을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듣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피리자전거·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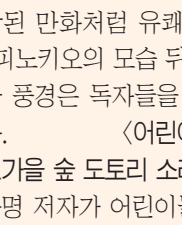
▲향=백가흠의 두번째 장편소설 '향'이 출간됐다. 작가는 '죽음'을 소설 전체의 구성적 요인으로 가져간다. 책 속의 인물들은 이미 죽어있거나 죽어서도 죽음을 반복한다. 우리는 죽음을 깨달을 수 없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문턱이 있을 뿐이다. 폭력과 복수와 속죄의 신화소가 곳곳에 얽혀 있고, 다양한 인물이 유영하듯 숲으로 흘러드는 이미지로 연결되는 복잡한 서사가 이 소설의 본 모습이다. 〈문학과학사·1만2000원〉



▲기술혁명=무엇이 과연 인간적인가? 를 묻는 새로운 인문학,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시도하는 '테크노 인문학'에 대한 제안이자 실천이다. 저자는 현대 과학기술의 도전 앞에서, 오랜 세월 과학과 격리되어온 인문학이 과학기술에 의해 주도된 지금 여기라는 조건에서 인간과 인간다움을 성찰함으로써, 집중하는 '기술권력'을 제어할 새로운 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세상·1만7000원〉



▲가을 숲 도토리 소리=나무 의사로 유명한 우종명 저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숲소리 그림책'을 꺼내 놓았다. 운율을 살려 숲속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를 글로 담아내고 하영 작가의 가을 풍경이 글을 포근하게 감싸 준다. 아마추어 청소년 작곡가 최지은양이 운율에 맞춰 작곡한 음원을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듣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피리자전거·1만원〉



▲가을 숲 도토리 소리=나무 의사로 유명한 우종명 저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숲소리 그림책'을 꺼내 놓았다. 운율을 살려 숲속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를 글로 담아내고 하영 작가의 가을 풍경이 글을 포근하게 감싸 준다. 아마추어 청소년 작곡가 최지은양이 운율에 맞춰 작곡한 음원을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듣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피리자전거·1만원〉

## 어린이 책꽂이

어지러운 십 대의 소용돌이에서 마주한 위기와 고민들이 불랑스럽게 않게 그려진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니더RHK·1만1000원〉



▲사과밭 수수께끼=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타라와 티린 선생님 반 아이들이 특별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낸 그림책이다. 밑하든지 느긋도 적지만, 깊게 생각하는 타라의 모습을 통해 천천히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가슴 따뜻하게 전해준다. 〈봄나무·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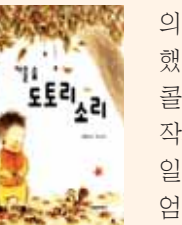


▲피노키오=이탈리아의 근대 아동문학을 창시했다고 평가받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원작의 특성을 살려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그레이엄 필포트가 피노키오를 살아 숨 쉬는 듯하면서도 과장된 만화처럼 유쾌하고 익살맞게 표현했다. 피노키오의 모습 뒤로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풍경은 독자들을 19세기 이탈리아로 이끈다. 〈어린이작가정신·1만3000원〉



▲가을 숲 도토리 소리=나무 의사로 유명한 우종명 저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숲소리 그림책'을 꺼내 놓았다. 운율을 살려 숲속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를 글로 담아내고 하영 작가의 가을 풍경이 글을 포근하게 감싸 준다. 아마추어 청소년 작곡가 최지은양이 운율에 맞춰 작곡한 음원을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듣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피리자전거·1만원〉

▲불량 하우스=쓰레기로 가득 찬 불량하기 짝이 없는 집에서 홀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열두살 베니, 그리고 베니의 집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려진 창작동화. 〈책세상·1만7000원〉



▲가을 숲 도토리 소리=나무 의사로 유명한 우종명 저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숲소리 그림책'을 꺼내 놓았다. 운율을 살려 숲속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를 글로 담아내고 하영 작가의 가을 풍경이 글을 포근하게 감싸 준다. 아마추어 청소년 작곡가 최지은양이 운율에 맞춰 작곡한 음원을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듣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피리자전거·1만원〉